

오피니언

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

光日春秋

전상국



을 추석 연휴 귀성객 수가 2천500만명
을 넘을 것이란다. 지금 이 시간도 귀성길
교통 정체와 그 혼잡은 다른 때와 다르지
않으리라. 그러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
들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들떠있을 터.

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의 감성 중
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것이 아닐까 싶다.
그것은 객지 생활을 통해 잃어버린 그 어
떤 것을 되찾고 싶은 바람이며 부모덕하
게 요염된 자신의 현실에 대한 회의와 더

고향이 그리워도

불어 찾아온 반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.
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적 삶에서 피폐
해진 가슴을 치유하고 충전 받기 위해 고향
을 찾는다.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도, 잊
고 사는 자기 뿌리 찾기도, 자신의 외로움
도, 삶의 고달픔도 고향에 가면 다 해결될
수 있다고 믿는다. 고향은 모든 것을 감싸
안고 다독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
무한량의 산소 탱크이기 때문이다.

일하는 우리의 산업현장 외국인 근로자들
이다. 그네들이 이 나라 연휴 중에 컨테이너
속에 얽매고 있을 편지 내용이 궁금하다.
며칠 전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 이산
가족 상봉 장면이야말로 실향민들의 환과
아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 잡아 보여
준 것이다. 남쪽의 아버지와 북쪽의 아들
이 육십 년 만에 맞잡고 흔들던 그 손의 떨
림, 이런 경우가 어디 있던 말인가. 고향을
지척에 두고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, 그
고향 땅을 밟을 수도, 거기 아직 살아 있는
혈육을 만날 수 없단 말인가.

남북이산 가족상봉이야말로 아직도 이 땅
에 살아 있는 이백만 실향민들의 아물지
않는 상처를 들추서놓을 뿐이다. 고복수
의 '타향살이'를 비롯한 추억의 고향 노래
가 아직도 구구절절 우리의 가슴을 울리
는 것도 남북 실향민들의 '꿈에 본 내 고향'
의 내 부모 내 형제를 언제 만날 수 있
느냐 그 한 맺힌 절규가 끝나지 않고 있기
때문이라.

독자투고 환영합니다. 이름,주소,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-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/전화 062-2200-628/팩스 062-222-4918/이메일 opinion@kwangju.co.kr

기고

김윤석



주부들이 살림을 꾸려나갈 때 적지 않은
어려움이 따른다. 지출항목을 꼼꼼히 따져
서 절약하지 않으면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
렵다. 따라서 지출항목을 결정할 때에는
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수입과 지출계
획을 짜는 것이다. 가계부는 일종의 가정
예산서인 셈이다.

확을 마련하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
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. 객관성이 있는
외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
과정은 거쳐 해당년도에 사업 예산을 반
영하는 것이다. 최소한 1년 전부터 사업계
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제부처와 예산 주
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관계자
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
는 얘기다. 수백억, 수천억이 소요되는 예
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
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
시절만도 최소한 2~3년이 걸린다.

에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.
둘째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
이다. 호남고속철도 건설, 광주의 R&D특
구 지정, 첨단사업단지 조성 등 대형 국책
사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 이러한 대
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지역이 발전
하고, 지역주민들의 삶이 윤택해 지는 것
이다. 그러나 이 사업들은 수천억, 수조 원
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
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 사업계획 수
립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야야 예산이
반영되는 것이다. 몇 년 전부터 주무부처
와 예산주관부처의 기관장을 비롯해 실무
사무원들까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우
리가 계획한 사업을 이해시키는 노력과
열정이 있어야 한다.

2010년도 광주시의 국비예산이 2조2천
억으로 2조원시대를 맞이하였다.
광주의 미래를 위해 10년 앞을 내다보
며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치밀한 사
업계획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불가능
했을 결과다.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과실
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지 않는다.
<광주 세우리 병원부시장>

가계부와 국가예산

의료 칼럼

송재욱



어릴 때 추석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
연계내내 TV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귀
향 차의 끝없는 행렬과 종일 부엌에서 음식
을 만드느라 바빠서 차례상과 손님맞이 준비
를 하는 어머니 모습입니다.
추석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
모여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,
척추전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
반갑지만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.
거의 막노동은 하는 만큼의 스트레스가
척추에 가해지게 되는 데, 실제로 추석이
끝나고 나면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
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는

것을 뚜렷이 느끼게 됩니다.
남자들의 경우 오랜 시간의 운전, 늦은
취침시간 및 음주 등으로 인해 척추 근육
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. 여성은
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, 시도
때도 없는 손님 맞이에 음식 만들기, 설거
지, 청소, 상 차리고 치우기를 할새없이 반
복하는 가사노동은 허리에 많은 부담을
줘 척추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

폐경기에 있는 50대 주부들은 근육을
비롯한 인대, 뼈 등이 약해져 있어 척추질
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. 한국의 부위 구
조상, 대부분의 주부들은 오래 동안 조그
래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음식을 잘
만하게 되는데, 특히 방바닥에 조그래 앉
아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 척추 주변 근
육이 경직되어 심한 허리 통증이 생길 수
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
갑작스럽게 척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

중간 중간 자세를 바꿔주거나 쉬는 시
간을 갖도록 해야 하고 특히 상을 펴고 접
을 때, 무거운 상을 들고 옮길 때, 바닥에
놓인 물건을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. 조그
래 앉기 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식탁 옆에
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허리 건강에 조금 더
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일이 끝난 후 자기
전에 따뜻한 목욕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
주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
귀향길의 장시간 운전은 목이나 허리
근육에 긴장을 줄 수 있고 통증을 유발 할
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. 규칙적
으로 휴식시간을 갖고 스트레칭을 해주는
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.
명절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,
명절 후 요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는 파
뜻한 찜질이나 목욕을 하면 통증이 다소
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, 가벼운 걷기 운
동 등으로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 주시기
바랍니다.
<광주 세우리 병원 원장>

명절증후군 이렇게 극복하자

순수 한국산 김치 美 수출 해법 찾아야

얼마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더니 우
리 김치가 많이 팔리고 있었다. 그런데 순수
한국산은 20%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
깜짝 놀랐다. 그 나머지 80%는 대부분 국적
이 애매한 반(半)한국, 반미국, 반중국, 반일
본제라고 하니 좀 안타깝다.
즉 미국에서 재배된 배추와 무를 사용하
면서 고춧가루와 마늘 등 양념은 한국에서
가져다가 버무리거나 또는 나머지 양념류는
중국산 고춧가루나 멕시코산 고춧가루를 쓰
고, 젓갈이나 소금류는 중국산 태국산도 사

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원 입원일수가
OECD국가의 평균 9.6일보다 4일이 길다는
보도를 본적이 있다. 이처럼 장기 입원을 하
게 되면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.
첫째,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
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. 자신에게도 병원
비 부담이 따르는데 굳이 장기 입원하는 이
유는 병실의 6인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에게
경제적으로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. 둘째,
정작 6인실에 가고 싶은 저소득층 환자
가 6인실이 부족해 1~2인실을 사용해야 하

는 문제점이다. 따라서 이렇게 건강보험 재
정만 축내는 입원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불
필요한 6인실 장기체류를 억제해야 한다고
본다. 그렇기에 1인실을 전체 병상의 10~
20%만 허용하고, 나머지는 2인실로 바꾼
다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.
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값비싼 1인실에
입원해야 하는 대형병원의 현실. 이제는 관
행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
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.
<이학섭·광주시 광산구 양산동

불필요한 병원 6인실 장기체류 건보 재정만 축내

시설

시·군 통합 '주민 이익' 우선이다

시·군 간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이 어
제 마감돼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갔
다. 광주·전남지역에서는 여수·순천
·광양·구례(광양만권), 목포·무안
·신안(무안반도권) 등 2곳이 통합대상
지역에 올랐다. 이들 지역은 행안부가
다음달 중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
통합대상 지역에 대한 동시 여론조사를
한 뒤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
지역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거
나 주민투표를 거쳐게 된다.

활권과 경제권이 동일한 광양만권과 무
안반도권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
지역과 주민의 미래에 보다 긍정적으로
작용할 게 분명하다. 또한 불필요한 예
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지역 경
쟁력을 높일 수 있다. 통합할 경우 지역
의 성장 잠재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
점도 고려해야 한다.
다만, 이번 시·군 간 통합은 말 그대로
주민의 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.
통합의 실익과 불이익, 장·단점 등을 충
분히 알리고 주민 스스로의 판단에 맡
겨야 한다는 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통
합 후 5년, 10년 뒤엔 경쟁에서 어떻게 발
전하게 되고, 이런 부작용도 예상된다.
통합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심
화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.

'대기업·중소 상생' 불황극복 앞당긴다

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
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불황 극복에도
정신호가 켜졌다. 상생경영 확산은 치
열한 글로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
지역 대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협력업
체 육성 필요성을 절감한데서 비롯됐
다. 임금과 자금, 기술지원 등 상생경영
방식도 다양하다.
금호석유화학은 올 1월부터 자사 임
원 임금 10% 반납과 전 직원 임금동결
로 얻은 자금으로 37개 협력업체 직원
들의 임금을 4% 올려 지급하고 있다.
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중소기업에게
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한편 월 상반
기에만 협력사에 20억원의 성과금을 지
급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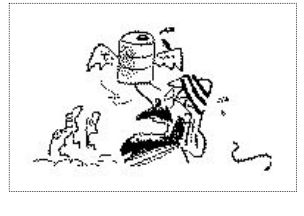
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대기업보다
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
다. 대기업들이 조업을 단축할 경우 중
소 협력업체는 아예 공장 문을 닫아야
할 지경이다.
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서민형 일자리
가 사라지고, 돈을 빌려준 은행도 타격을
받는다.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
위해서는 우수한 협력업체의 뒷받침이
필수적이다. 상생경영은 대기업과 협력
업체, 금융기관 모두 수혜자가 되는 '윈
윈 모델'인 셈이다.
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아직도 납품
단가를 후려치거나 대금 지급 시기를
미루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
다. 상생경영을 앞장서 실천하는 기업
에는 세계 혜택이나 금융 거래의 인센
티브를 제공하되 중소기업을 몰리는 대
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
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. 대기업과 중
소기업의 상생경영을 경제위기 극복의
전기로 삼아야 한다.

無等鼓

내년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
이다.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
동향 보고서는 올해 국제유가(두바이
유 기준)가 배럴당 60달러, 내년에는 75
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. 삼성
경제연구소도 내년 국제유가가 83.9달
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.
이 정도라면 내년 국내 소비자물가
상승률은 2~3% 선에서 그칠 수 있을
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
고 있다. 국제유가 추
세가 국내 경기회복에
큰 도움이 줄 수 있다
는 의미다.

경쟁에서 밀린다.
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. 투자처를
찾아 세계 금융시장에 유입된 오일머니
를 유치하는 것이다. 무려 4조 달러 규
모다.
그러나 이슬람 교도가 2~3만명에 지
나지 않는 한국에서 오일머니로 통칭되
는 이슬람 금융 상품은 낮은 분야다. 이
슬람 율법인 샤리아(Shariah)의 원칙
에 따라 이자에 대한
수수를 금지하고 불확
실한 거래 및 도박과
같은 비도덕적 행위를
금하며 이익과 손실에
대한 공유를 원칙으로
하는 것 등이 사투 무
리와는 다르다. 가령
이슬람 채권을 국내에
서 발행하려면 현행법
상과 맞지 않아 면세
혜택을 주기도 어렵고 발행절차도 까다
로운 상황이다.

이슬람 금융



방심은 그대도 금물
이다. 무엇보다 국제
유가 시장에서 증가하
고 있는 투기성 거래
가 심상치 않아, 금등
세가 재연될 가능성도
배제할 수 없다.
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짜는데 신중할
수 밖에 없는 이유다. 연간 860억 달러
에 달하는 원유 수입액도 큰 부담이다.
어떻게든 중동 산유국에 가져다준 오
일머니를 한국 경제로 환유시키어야 하
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. 과거 중동 불
안 사태에 노릇을 하던 건설업도 원가

정부가 때마침 이런 점을 개선해 이
슬람 금융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세법
을 개정,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다.
금융업이 건설업을 대신해 '중동 특수'를
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.
/김주정 경제부장 jnews@kwangju.co.kr

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
사장·발행·편집·인쇄인 柳濟誌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書庚完
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(일간)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우편번호 501-711
대표전화 222-8111·2200-551(지사·지국)구독신청·배달안내 www.kwangju.co.kr
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-692
(대표 FAX 222-4918) (F A X 227-0118)
편집부 2200-672 문화생활부 2200-661
정치부 2200-634 여론제작부 2200-679
경제부 2200-641 체육팀 2200-663
사회1부 2200-612 사 진 부 2200-691
(F A X 222-4267) 조 사 부 2200-571
경영지원국 2200-511 문화홍보국 2200-541
(F A X 222-8005) (F A X 222-0195)
광고마케팅국 2200-521 독자서비스국 2200-551
(F A X 227-9500) (F A X 227-9500)
디자인 2200-536 서울지사 02-773-9331
(F A X 02-773-9335)
※구독료 월정 10,000원 1부 400원
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